



강정호 4G연속 멀티히트
후반기 타율 0.476 후끈
6번



나PD·강호동·이수근
4년만에 전격회동 왜?
▶ 나영석 10면

NC 김경문 감독, 후반기에 독해졌다

나성범 무안타 스탠딩 삼진 당하자 교체
치열한 순위싸움에 선수들 정신력 강조



NC 김경문 감독이 후반기 들어 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성범도 작전도 자주 구사하고, 주전 선수도 느슨한 틈을 보이면 바로 교체하면서 선수단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스포츠동아DB

NC 김경문 감독은 후반기 들어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반기 성적은 있고, 후반기 레이스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다. 또 세밀한 작전으로 '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C는 그렇게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NC는 전반기를 3위(46승2무34패)로 마감했다. 선두 삼성과는 1.5경기차, 그러나 김 감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한다. 전반기 성적은 있고 남은 경기만 생각하자는 것이다.

변화는 경기에서 감지된다. 22일 울산 롯데전 3회말 수비 때 중심타자 나성범을 빼버렸다. 나성범은 이날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는데, 3회초 무사 2루 2번째 타석에서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김 감독은 시즌 초반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똑같은 상황에서 나성범을 교체한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NC 야구는 세밀해지고 있다. NC는 전반기 희생번트가 37개에 불과했다. 넥센(34개)에 이어 최소 2위였다. 선이 굵은 야구는 김 감독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승리를 위해 변화하고 있다. 22일 경기에선 무려 4차례나 희생번트 작전을 시도했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

점수를 짜내는 야구로 볼파크를 찾은 것이다. 또 9회말 1사 1루전 롯데 타자를 상대하던 도중 중견수 이종욱을 최재원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선수단 미팅에서 김 감독은 "앞으로 작전이 많아질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22일 3-2 승리 직후에도 칭찬하는 대신 "후반기는 선수들의 정신력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연 NC 선수들은 감독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을까. ▶프로야구 관련기사 3·4·6·12면

울산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아직도 현역, 기쁘지 아니한가”

주말 인터뷰 36세 전북 이동국이 말하는 '행복한 축구'



전북 이동국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K리그 역대 최다골 행진을 거듭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후배들과의 경쟁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의 다음 목표는 통산 200골이다. 스포츠동아DB

KBS 드라마국-예능국 '송일국 쟁탈전'

사극 '장영실'·예능 '슈퍼맨' 병행 결정
촬영스케줄 조율 등 양측 의견대립 팽팽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기자 송일국(사진)을 사이에 두고 KBS 드라마국과 예능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당이 아빠'와 '장영실' 사이에서 양측은 팽팽한 의견대립 양상을 드러내며 송일국을 더욱 난처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3일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송일국은 연말 방송 예정인 KBS 1TV 사극 '장영실'에 출연하기로 했다. 몇 달 전 주연 제의를 받고 한 달여 동안 고심했던 송일국은 최종 출연 의사를 최근 드라마국에 전달했다. 또 다른 고민거리였던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슈퍼맨)도 촬영 스케줄 조율을 전제로 당분간 계속 출연하겠다는 뜻을 예능국에 전했다.

하지만 KBS 드라마국과 예능국은 송일국이 각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해줄 바라고 있다. 드라마국은 현재 방송 중인 '징비록'이 전작인 '정도전' 만큼의 관심몰이에

실패해 '장영실'이 대사극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예능국에서는 현재 '슈퍼맨' 인기의 일등공신인 송일국과 세 쌍둥이 대한·민국·만세의 하차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 중인 '슈퍼맨' 속 송일국의 이미지가 같은 요일 밤 9시에 방송될 '장영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병행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체력적, 정신적 피로를 감당해야 하는 송일국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가에서는 KBS 드라마국과 예능국이 각기 이익만을 생각해 마치 송일국이 선택의 기를 쥐고 있는 것처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협의 중이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송일국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26일 수원과 사실상 결승전 '전의 활활'

욕심 안부린 게 17년 장수의 비결
이젠 경쟁자 포용할 여유도 생겼죠
후배들, 날 뛰어 넘어야 룡런 가능
지도자 준비? 200골부터 넣고 생각

요즘은 다른 부분으로 화제다. 딸 두 쌍둥이에 이어 지난해 아들까지 얻은 '다둥이' 아빠로 주목을 받는다. TV 연예 프로그램과 CF 출연 요청이 쇄도한다. 그러나 그가 가장 그대워질 수 있는 곳은 역시 초록 그라운드다. 1998프랑스월드컵을 기점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17년 넘게 한국 축구의 중심에 서 있는 이동국(36·전북현대)이다. 전북 완주군의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그의 첫 마디는 "행복하다"였다. "이 나이에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 어떻게 웃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수의 비결은 딱히 없었다. 굳이 꼽는다면 낮은 목표? 그는 "(최강희) 감독님이 국가대표팀을 이끌다 돌아오신 2013시즌 후반기부터 기대치를

낮췄다. 시즌 시작할 때 시즌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에 시선을 뒀다. 3일 단위의 삶이다. 한 경기 한 경기 소화하다보니 지금까지 왔다"며 환하게 웃었다.

●부상 없는 시즌, 이느낌 그대로!

전북은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2라운드까지 14승5무3패(승점 47)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격돌할 2위 수원 삼성과 격차는 승점 7점이다.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경기를 잡으면 전북은 우승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최고의 킬러 이동국의 발끝에 시선이 모아진다. 올 시즌 전반기 함께 전방 파트너를 이룬 에두가 최근 중국 갑(1)부리그 허베이 쑹저로 떠나 그의 비중은 훨씬 커졌다. 에두의 자리는 우르코 베라(스페인)가 메웠으나, 아직 완벽히 팀에 녹아들진 못했다. 다행히 믿을 구석이 있다. 남다른 골 감각에 버무려진 '우승 DNA'다. 이동국은 전북에서 3차례나 정규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전북 유니폼을 입은 첫 해인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K리그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에도 19경기에서 8골·3도움을 기록

하며 전북의 1위 질주에 큰 몫을 했다. 나쁘지 않은 페이스다.

"수원전이 최대 분수령이다. 휴식 없이 달려 오다 울산타 브레이크를 맞이해 충전도 했다. 곧바로 동아시아컵(8월 1~9일·중국 우한)으로 휴식기가 또 오는데, (수원을) 꼭 이겨야 한다. 우리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도 도전하고 있어 쫓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동국은 또 다른 부분에 주목한다. '부상 없는 시즌'이다. 부상 방지에 각별히 신경 쓴 덕분에 최근까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히려 한여름으로 접어들며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다. 고비마다 부상으로 운 기역이 잦기에 그는 요즘이 더 없이 감사하다.

"발목 등 작은 부상은 1~2경기 쉬면 괜찮은데, 한 달 이상의 근육 부상은 정말 크다. 감독님은 내가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는데, 정말 항상 조심한 결과다. 팀 훈련 외에 보강운동과 마사지를 꾸준히 하고, 냉·온탕을 1분30초씩 옮겨 다니며 7세트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물론 보조제도 조금씩 섭취한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대표이사 서영숙 서영숙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특허 제 10-0756243 호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허명칭

사용당일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본인도 놀라는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둑!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상에 없는 반쯤제도! 효능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반품률 4%대! 세상에 없는 반쯤제도를 만들게 된 원동력과 자신감입니다.

상당원과 통화가 필요없는 반품 시스템
15일간 사용해보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이라는 (반품택배비 고객부담) 메모와 계좌번호,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보다 반품이 더 간단한 세상! '뉴맨'이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뉴맨'의 광고를 접하면서 이런 작은 반지가? 에이 설마? 라는 의심이나 불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유수의 스포츠신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를 통하여 꾸준히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제도라면 이제 신뢰해서도 되지 않을까요.

※ 뉴맨 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엔제이스포츠

개폐장치

본드무와 방수이 아닌 보석용접방식으로 방수구멍 원천차단

자석 (약200가우스) 두께3mm에 달한 분해에 용이(수술) 장구 내장 분해 (순수)

별칭 사이즈	뉴맨 수
6.5018	주연 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주연 제작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형일입니다.
남성이 당당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바뀐다면?
'뉴맨'이 확실한 패트를 드립니다.
강한남자 '뉴맨!'입니다.